

# VR속 먹거리·AI 레시피... 음식, 과학과 예술을 만나다

ACT 페스티벌 2019

## FoodHack 해킹푸드

“자연에서 얻은 재료 없이 오직 융·복합 기술로만 만든 음식을 먹고, 세상의 모든 레시피를 분석한 AI(인공지능로봇)가 인간이 가장 좋아할 만한 새로운 소고기 요리법을 알려준다.”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 같은 일들이 단순히 상상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이 같은 일은 실제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하면서도 정교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음식과 기술의 결합은 예술과 감성, 과학과 기술의 융합을 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뒤섞이는 창의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분야다.

과학기술을 매개로 음식을 탐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이하 ACC)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이하 ACI)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ACT페스티벌 2019 '해킹푸드'를 개최한다. 문화재단 문화창조원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음식과 예술을 조명한다.

이와 함께 페스티벌이 열리는 기간 미디어아트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행사인 '2019 국제전자예술 심포지엄'(이하 ISEA 2019)'도 문화창조원 복합 2관과 국제회의실 등에서 펼쳐진다.

ACT(Arts & Creative Technology)페스티벌은 세계적 창작 플랫폼으로서의 ACC 역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축제로, 국내외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창작자들이 모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시간이다.

올해 ACT페스티벌은 '푸드&테크놀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음식과 예술의 결합을 탐구하는 동시에 작업과정 자체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즐거움을 '해킹'이라는 방법을 통해 조명한다. 이번 행사는 ACT쇼케이스, A/V퍼포먼스, 토크&랙처, 워크숍, 스크리닝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복합3관에서 펼쳐지는 'ACT쇼케이스'(8월 4일까지)는 올해 ACC R 국제레지던시에 참여한 창작자 9명과 ISEA2019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 4명의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전민재 작가는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 음식사진을 올리는 행위 속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데이터로 분석해 보여주는 작품을 준비했다. 또 한국의 언해피서킷 작가는 모든 레시피를 학습한 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 내는 AI를 선보이며 실제 음식으로 조리하는 과정을 라이브 퍼포먼스로 보여준다.

미국의 풀 공 작가는 쉽게 제거되고 있는 인간의 맹장의 중요성을 말하며 이를 살리기 위한 식단을 제

ACC·아시아문화원, 22~28일 개최

현재와 미래 위한 음식과 기술 조화

어린이문화원 '맛있는 실험실' 캠프

안하는 '막창자꼬리 인간' 프로젝트를 펼치며 타이완의 텃 통 창은 광주 시민의 몸에서 채취한 중금속으로 막걸리를 빚는 '인간막걸리'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또한 작가 알루는 '알루 미역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의 음식인 미역을 디지털 미디어로 비주얼적으로 화려하게 표현하고 재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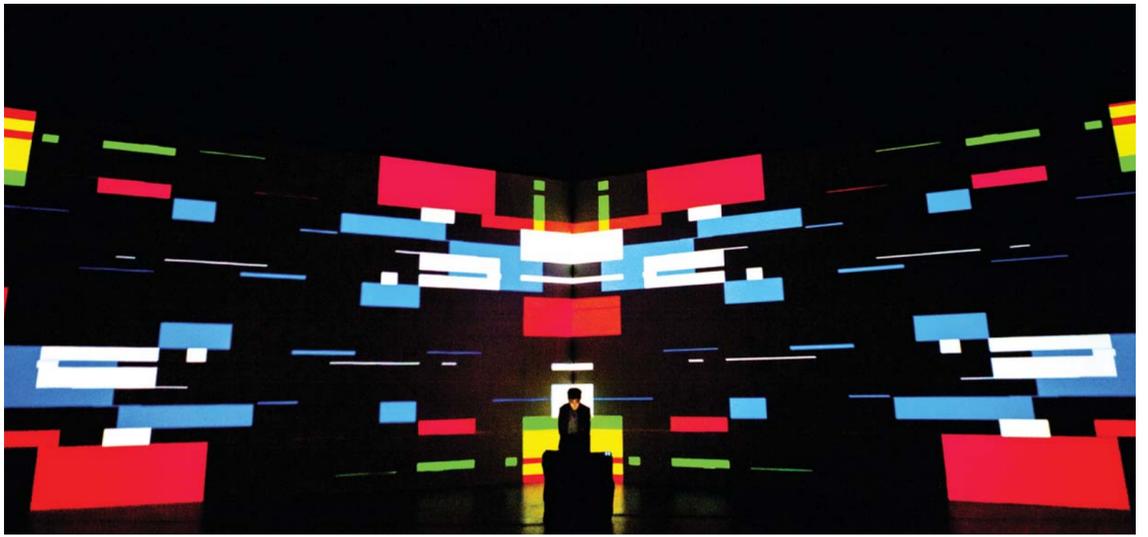
강연과 워크숍, 체험행사 등도 함께 진행된다. 복합4관에서 진행되는 '랙처' 프로그램에서는 미래주의자들이 제안한 기이한 만찬에서부터 실험실 배양육까지 음식의 미래에 대한 연사들의 강연이 진행된다. 박남희 '해킹푸드', 이윤재 '1900-2010, 미래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 최도진 '기이한 만찬', 코에르트 반멘스부르트 '이 다음의 음식, 이 다음의 자연', 해리 파 '다감각 음식의 미래'가 펼쳐져 음식과 미래, 음식과 과학 등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복합4관에서 펼쳐지는 워크숍도 눈에 띈다. 3D 푸드 프린팅으로 미래 대체식품인 식용곤충을 직접 만들어 시식까지 해보는 김성주 작가의 '워크숍', 미래식량을 주제로 한 상차림을 주제로 한 강소영 작가의 '100년 후의 만찬' 등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음식을 주제로 한 상호작용 게임을 선보이는 '스크리닝' 등의 행사도 열린다.

어린이문화원에서는 10~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아트 캠프 'Action vol.1-맛있는 실험실'도 열려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꿈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기간에 열리는 ISEA2019는 문화전당과 광주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이 주최하고, 아시아문화원과 아트센터 나비가 주관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 주제는 '룩스 에테르나(Lux Aeterna)'로 빛과 그림자에서 영감을 얻은 '영원한 빛'이라는 의미다. 행사는 학술 프로그램, 아트 프로그램,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아트 프로그램으로는 전시와 퍼포먼스, 스크리닝, 아티스트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100여 점의 세계 각국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또 광주 도심 곳곳을 탐색하며 얻은 결과물을 전시와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주는 참여형 워크숍이 광주문화재단 미디어 338에서 열린다. 문의 1899-5566. /박성천 기자 skypark@



언해피서킷 작 'Learning About Humanity'

### 제9회 문지문학상에 정용준 '사라지는 것들'

올해 제9회 '문지문학상'(상금 1000만원)에 정용준(사진)의 '사라지는 것들'이 선정됐다. 4월 문학과지성사가 밝혔다.



문학과지성사는 계간문예지 '문학과사회' 여름호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작가 인터뷰와 심사평을 실었다.

또 분기마다 간행하는 단행본 시리즈 '소설 보따리'에 작품과 작가 인터뷰가 실렸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단은 "자극이 일삼적 소재 속에 트라우마와 죽음의 문제를 녹여 내는 솜씨"가 있다며 "일급 작가임이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열린다.

광주 출신 정용준은 조선대학교 러시아어과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2009년 '현대문학'에 단편 '굿나잇, 오블로'가 당선돼 작품활동을 시작해 2011년 단편 '떠떠떠, 떠'로 제2회 젊은 작가상에 당선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누벨바그를 이끈다

'아녜스 바르다 회고전' 16일까지 광주극장

'누벨바그의 대모' 고(故) 아녜스 바르다를 기리는 영화제가 광주에 마련된다.

'아녜스 바르다 회고전'이 오는 5-16일 광주시 동구 광주극장에서 개최된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고전은 데뷔작부터 유작까지 총 9편의 영화가 준비됐다.

먼저 사랑하는 남편의 대화 장면과 주위 사람들의 삶을 겹쳐 보이는 독특한 형식으로 화제를 모았던 데뷔작 '라 푸앵트 쿠르트르의 여행'(5일)으로 막을 올린다.

아녜스 감독의 독특한 연출이 눈에 띄는 작품들도 상영된다. 스스로 암질환을 의심하는 클레오의

## Agnes Varda

심리를 따라가는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6일, 15일),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네 사람이 각종 뉴스와 영화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라이온의 사랑'(7일, 15일) 등이다.

여성 간의 우정과 여성운동을 그린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8일, 16일), 여성이 처한 차별적인 삶의 조건에 비판적 질문을 던지는 '행복'(6일, 9일) 등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만든 영화도 스크린에 오른다.

배우 제인 바킨의 삶과 작업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한 '아녜스 V에 의한 제인 B'(14, 16일), 사진작가 JR과의 협업으로 프랑스의 시골 마을을 찾아가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7일, 15일)남편 자크 드미의 유년의 기억들을 재구성한 '남트의 자코'(14일), 유작 '아녜스가 말하는 바르다'(상시 상영) 등 각종 다큐멘터리 작품도 볼 수 있다.

지난 3월 타계한 아녜스 감독은 프랑스 누벨바그를 이끈 감독들 중 유일한 여성감독으로 '누벨바그의 대모'라 불렸다. 91년의 생애 동안 50여편이 넘는 장·단편 연출작을 틀을 깨는 연출과 페미니즘적 메시지를 담아 창작했으며 지난 2015년 제68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명예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한편 광주극장은 상영작 중 7편의 영화를 관람하고 스태프를 모은 선착순 10명에게 '아녜스 바르다 아카이브 프로그램북'을 나눠주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관람료 일반 8000원, 청소년 7000원, 실버 5000원. 문의 062-224-5858.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타지 휴즈 작 스크리닝 '누르'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주택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주택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특별리더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기술부문] 수상